

# 하늘다리

Bimonthly Magazine of Ansan Arts Center  
January+February 01+02

**Steve Barakatt**



COVER STORY

2년 연속 예술의전당 공연  
《Sweet Concert》전석 매진 신화의 주인공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  
그가 더욱 달콤한 선율의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2013년 2월 1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그의 개성 넘치는 사운드와 감미로운 멜로디를 만나보세요.



24



28



30



54



64



ASAC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이니셜로 기획공연프로그램 브랜드입니다.

「하늘다리」 2013년 1+2월호(통권 제34호) · 비매품

발행인 김철민 편집인 김인숙

발행처 안산문화재단(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31-481-4047 팩스 031-481-4021

기획 문화홍보부

편집디자인 · 인쇄 (주)반디컴 02-2272-1190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 CONTENTS

## ASAC ESSAY

04 포토에세이

## ASAC PEOPLE

06 안산문화재단  
김철민 이사장 신년인터뷰

## 문화진단

10 안산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 ASAC REVIEW

14 ASAC 2013  
기획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 ASAC FOCUS

18 2013 공연프로그램  
20 최석규 감독 인터뷰  
24 2013 확~ 달라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 ASAC REVIEW

26 염전이야기

## ASAC STAGE

28 신개념 영어스토리텔링쇼  
‘Five Fools and You’  
30 2013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32 2013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공모작 참가안내

## ASAC EXHIBITION

34 미술관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38 대관공연

## ASAC CULTURE TREND

40 테마가 있는 미술  
44 연출가 시리즈  
48 즐거운 클래식 시대를 읽다

## 문화家탐방

52 문화 후원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정인광 원장, 문옥선 소장

## 동아리탐방

54 서울예술대학교  
마임동아리 <판토스>

## 전당뉴스

56 안산아트 뉴스  
58 2013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안내  
59 무대야놀자

## 상주단체 소식

60 상주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64 체험공연 <가방 속의 울퉁이>



# 01 JANUARY 2013

무대안전점검 
  기획공연 
  대관공연 
  기획전시 
  아카데미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b>	<b>2</b>	<b>3</b>	<b>4</b>	<b>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3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li> </ul>				
<b>6</b>	<b>7</b>	<b>8</b>	<b>9</b>	<b>10</b>	<b>11</b>	<b>1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골 가방 속의 울공이 1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골 가방 속의 울공이 1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골 가방 속의 울공이 1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골 가방 속의 울공이 1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악콘서트 19:00</li> <li>■ 몸골 가방 속의 울공이 11:00, 14:00</li> </ul>
<b>13</b>	<b>14</b>	<b>15</b>	<b>16</b>	<b>17</b>	<b>18</b>	<b>1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골 가방 속의 울공이 11:00, 14: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골 가방 속의 울공이 1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골 가방 속의 울공이 1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뮤지컬 Five fools and you 11:00 / 14: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뮤지컬 Five fools and you 11:00 / 14:00</li> </ul>
<b>20</b>	<b>21</b>	<b>22</b>	<b>23</b>	<b>24</b>	<b>25</b>	<b>2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룸마공연 14:00 / 18: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상공회의소 19: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무대 점검 준비</li> <li>■ 안산신히름 14:00</li> <li>■ 전국학생음악콩쿠르</li> </ul>
<b>27</b>	<b>28</b>	<b>29</b>	<b>30</b>	<b>3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무대 점검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무대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무대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무대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무대점검</li> <li>■ 북세통 겨울이야기 11:00</li> </ul>		



# 02 FEBRUARY 2013

무대안전점검 
  기획공연 
  대관공연 
  기획전시 
  아카데미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b>	<b>2</b>
					■ 상반기무대점검 ■ 북새통 겨울이야기 19:30	■ 상반기무대점검 ■ 북새통 겨울이야기 15:00 / 19:00
<b>3</b>	<b>4</b>	<b>5</b>	<b>6</b>	<b>7</b>	<b>8</b>	<b>9</b>
■ 상반기무대점검 ■ 북새통 겨울이야기 15:00	■ 상반기무대점검	■ 상반기무대점검	■ 상반기무대점검	■ 상반기무대점검	■ 상반기무대점검	
<b>10</b>	<b>11</b>	<b>12</b>	<b>13</b>	<b>14</b>	<b>15</b>	<b>16</b>
	■ 무대점검	■ 무대점검	■ 무대점검			■ 스티브바라캣 스윗발판타인 17:00 ■ 틀려도 괜찮아 11:00 / 14:00 / 16:00
<b>17</b>	<b>18</b>	<b>19</b>	<b>20</b>	<b>21</b>	<b>22</b>	<b>23</b>
	■ 무대점검					
<b>24</b>	<b>25</b>	<b>26</b>	<b>27</b>	<b>28</b>		
	■ 무대점검					

# Photo Essay

## 흑사(黑蛇)년 첫 장을 열며

2013년 흑사(黑蛇)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도 생명을 놓지 않는 의지의 동물로 알려진 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불사(不仕)와 재생(再生),

영생(永生)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흑사년 새해,

우리에게 불사(不仕)의 생명이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2013, 예술의 기운이  
모두에게 힐링 되길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

김철민 이사장

2013년 기사년 새해를 맞아 안산문화재단 김철민 이사장을 만나 하늘다리 독자들에게  
신년의 포부를 들었다. 참여와 소통의 장을 열어갈 포부와 다짐을 들어본다.

**기사년 땀띠해가 밝았습니다. 하늘다리 독자들에게 신년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늘다리 독자님들의 살림이 많이 나아지고 내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  
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문화와 좀 더 친해지는 일 년을 만드시면서 예술 자질을 높이는 실천들  
을 한 가지 이상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에는 특히 저희 안산에서 단원미술전시관을 만들어 작가 분들에게 전시의 장을 열어드리  
고 시민들께는 미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안산을 문화의 향  
기가 흐르는 곳으로 만드는데 무척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년 내내 풍성한 예술체험  
을 통해 독자님들 마음에 예술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취임하신 지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  
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안산의 지역문화는 대단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산의 문화가 발전  
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산의 문화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며 거기서 안산문화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시민들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합창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을 때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이 찾아지는 것이라 봅니다.



## 2013년은 안산의 문화예술의 큰 변화(안산문화재단 출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13년에 출범하는 안산문화재단은 거기서 더 나아가 안산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예술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화정책을 적극 개발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활동도 힘껏 육성을 하여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안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안산은 단원 김홍도의 도시입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김홍도 도시에 걸맞게 김홍도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김홍도 선생의 풍속화에 담겨 있는 서민들의 삶을 오늘에 승화시켜 안산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들에게도 안산 지역문화의 소중한 자산인 단원의 예술혼을 심어 드리려고 합니다.

## 전국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성격이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보다 특성 있는 예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춘 지역밀착형 예술 공간을 지향합니다. 또한 자체 제작능력을 가지고 매년 한 작품 이상의 공연을 만들어 창작공간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지역 예술가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고 가을에 열리는 공연예술제를 통하여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공연사업, 전시사업, 예술교육사업, 축제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특성 있게 실시되면서 화제가 끊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로 2년 연속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경기도를 넘어 국내 대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2013년에는 '도시의 변신, 거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산의 브랜드를 내건 개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막 프로그램도 주민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형 대형 야외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아 거리예술을 선도하는 축제로서 세계적인 예술축제 및 예술단체들과의 교류 및 협업을 진행하고 지역 특화형 공연을 위한 자체 제작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공연물 제작을 위해 거리극창작센터도 만들고 있고 또한 협력 프로듀서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축제에서는 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안산에서 이루어진 많은 공연과 축제 등이 있었는데 가장 감명 깊었던 공연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세요.**

틈나는 대로 공연과 전시 관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각박한 생활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요, 저도 예술을 접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공연을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중공연에서 감동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의 애환이 녹아져 있는 노랫말과 가락에 덩달아 흥겨워집니다.

새해에는 문화생활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삶터 곳곳에서 더 자주 보았으면 합니다. 🌈

문화홍보부

## 안산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안산문화재단이 긴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 닻을 올렸다. 안산문화재단은 그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하 안산문예당)을 운영하면서 쌓아왔던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토대로 안산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안산문예당은 2004년 개관 이후, 지역공연장의 모범을 창출하면서 그 운영사례들이 예술기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었다.

안산문예당은 개관하면서 안산시 직영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2007년도에는 경영의 효율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운영형'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말에 다시 기초단위 문화재단으로 변모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사실 안산문예당은 그동안 공연장과 전시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지역 아마추어 동아리 활성화 사업, 지역예술단체 협력사업 등 일부 문화재단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번 안산문화재단의 출범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문화공동체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면서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문화 복지의 확산을 이루어 내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먼저 지역문화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즉, 지역문화정책 싱크탱크 역할이다. 안산만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집결하여 우리만의 특화된 문화정책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차별화된 안산문화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는 지역문화정책 집행자로서의 안산문화재단의 역할 모색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정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AN  
SAN  
ART CENTER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재단은 어떤 모습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지역 전체의 문화지도를 그리고 문화정책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문화재단은 출범 이후 바로 지역의 문화적 환경 분석과 재단의 미션 재정립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미션(mission)은 조직의 존재가치와 핵심철학에 대해 간결하게 진술한 것으로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예술인들과의 결합을 어떻게 이루어 내는가에 따라 재단 운영의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이는 지역 문화공동체 인큐베이터 역할이다.

문화재단의 사업들은 길게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 처음엔 시민들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단단히 기초를 다지고 문화공동체의 구조를 확실히 세우면서 여러 사업들과 연계를 이루어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예술인들과도 협업 체계를 굳건히 이루어내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제반 사업들을 꾸려야 한다. 이 부분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인데,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복돋는 지원활동을 긴밀하게 하면서 그 열매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다. 지역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사업도 부지런히 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중개하고 결집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안산의 지역문화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션(mission)은 조직의 존재가치와 핵심철학에 대해 간결하게 진술한 것으로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복돋는 지원활동을 긴밀하게 하면서 그 열매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다. 지역 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사업도 부지런히 할 것이다.

안산문예당이 지역밀착형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했듯이 안산문화재단의 제반 사업들은 철저하게 지역 단위를 존중하면서 실사구시 정신을 발휘할 것이다. 이른바 동네미술이라 일컫는 '커뮤니티 아트'를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이 아니라 커뮤니티 안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삶과 관계 맺는 사고를 지향할 것이다.

안산문예당이 지역밀착형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했듯이 안산문화재단의 제반 사업들은 철저하게 지역 단위를 존중하면서 실사구시 정신을 발휘할 것이다. 이른바 동네미술이라 일컫는 '커뮤니티 아트'를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이 아니라 커뮤니티 안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삶과 관계 맺는 사고를 지향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개인 주체가 향유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생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동네 주민들을 문화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굳건히 세우면서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은 단순한 예술 감상자가 아니라 예술 창작활동의 주역이 되며 시민들이 예술창작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안산문화재단은 예술교육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시켜 창의적인 문화시민 육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전문성이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으로 지역 내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유지하고 학교 예술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여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예술교육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개발하여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참가형 프로그램,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의 사업으로 커뮤니티 아트를 재단의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안산문화재단은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운영전략을 3년마다 새로 짜려고 한다.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강점이고 약점인가를 면밀히 진단하면서 거기에 맞게 조직 설계를 할 것이다. 안산문화재단은 직원의 전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조직운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의 20년 후 상황까지 시야에 넣어 중장기로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은가, 그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전개하면 좋은가라는 이른바 문화 정책적 철학을 가지고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안산문화재단은 재단 자체의 정책 기능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책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화예술의 옹호자로서 시민사회가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기초단위 문화재단 설립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문화재단은 열린 개념의 지역성 실천으로 다른 문화재단과의 개방성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재단에 정책 기능 부여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 연구 역량 강화 및 사업과 경영정보 공유를 위하여 문화재단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협력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역단위 협력사업 내용 및 방법모색이 논의될 것이고 기초문화재단 상호 간 네트워크 협력 방안도 연구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 재단 미션의 재정립, 평가 시스템의 도입, 경영 효율성의 강조, 공익성 추구, 지역문화 컨버넌스 구축 등의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은 필수적이다. 🌈

고정범(경영지원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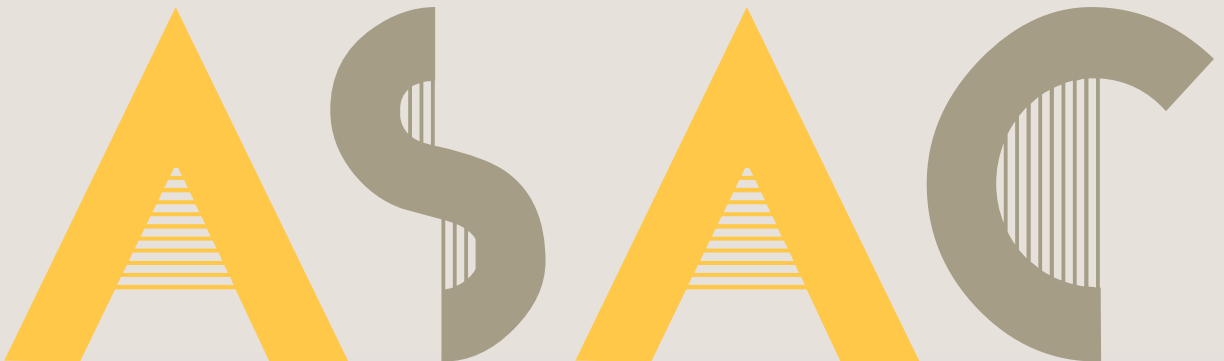
안산문화재단은 직원의 전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조직운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의 20년 후 상황까지 시야에 넣어 중장기로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은가, 그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전개하면 좋은가라는 이른바 문화 정책적 철학을 가지고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안산문화재단은 재단 자체의 정책 기능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책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화예술의 옹호자로서 시민사회가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 ASAC 2013 기획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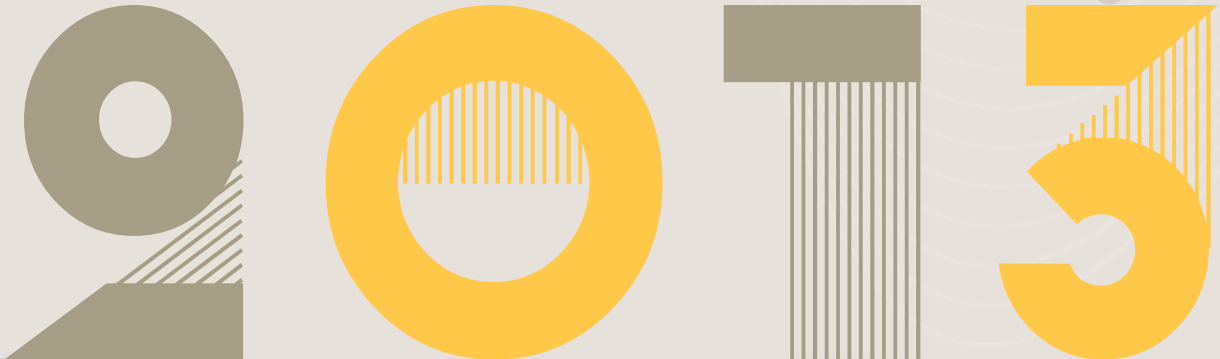
● ● 2012년도에는 제작공연 1편과 공동제작 공연 2편을 비롯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2011년 ASAC 창작희곡공모 가작 당선작으로 선정된 김연민 작가의 ‘염전이야기’가 박혜선 연출로 제작되어 약 열흘간 공연이 별무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개오디션을 거쳐 대학로 배우 3인 그리고 안산 지역 배우 4인이 참여하여 많은 관객 분들과 함께 과거의 염전을 배경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향토사 강의와 지역의 변천사 사진전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극단, 고양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공동 제작한 이윤택 작, 연출의 ‘궁리’와 벨기에 라 플라스 극장, 아시아나우와 공동 제작한 ‘병사이야기’는 안산을 비롯한 서울 부산에서 공연되었습니다. 해외공연 초청으로는 찰리 채플린의 딸과 손녀가 만든 마임극 ‘속삭이는 벽’과 신춘음악회에 뮌헨 체임버오케스트라, 그리고 유키 구라모토가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왕세자실종사건’, ‘영웅’, ‘광화문연가’, ‘빨래’에 이어 우리 창작뮤지컬의 성과를 나누어 공유하는 ‘우리뮤지컬의 힘’시리즈 여섯 번째로 뮤지컬 ‘설록홈즈’가 공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소극장연극시리즈도 ‘춘천거기’가 총 8회의 공연이 진행되는 등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 프로그램 또한 알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 동향이 불안해지고 공연 제작비 상승으로 초청단가가 인상되면서 규모의 운영이 필요했지만 지속가능한 기획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맥락과 명분,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소통을 위한 홍보에 대한 자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습니다.



● ● 이제 2013년도 ASAC 기획프로그램 기본계획안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연간 기본 계획보다는 수시 기획에 의존하던 기획프로그램이 이제 안정적이고 미리 준비되는 연간 계획을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배경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연계에서 사전 제작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둘째는 공연의 인지도보다는 공연을 매개로 한 공연장과 지역주민의 소통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습니다. 셋째는 제작공연 등 전담 자체적으로 만드는 공연이 늘어나면서 역량을 재배치합니다.

● ● 우선 우리 공연계의 제작 사전 준비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기획 사나 공연장들도 거기에 맞게 미리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연으로 검증되어 투어가 섭외되었다면 이제는 리스크를 안고 가더라도 사전 제작단계에서 기획 공연을 섭외하고 확정해야 안정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지는 환경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사전 준비단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맞게 탄력적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미리 확정된 공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가 길어지고 넓혀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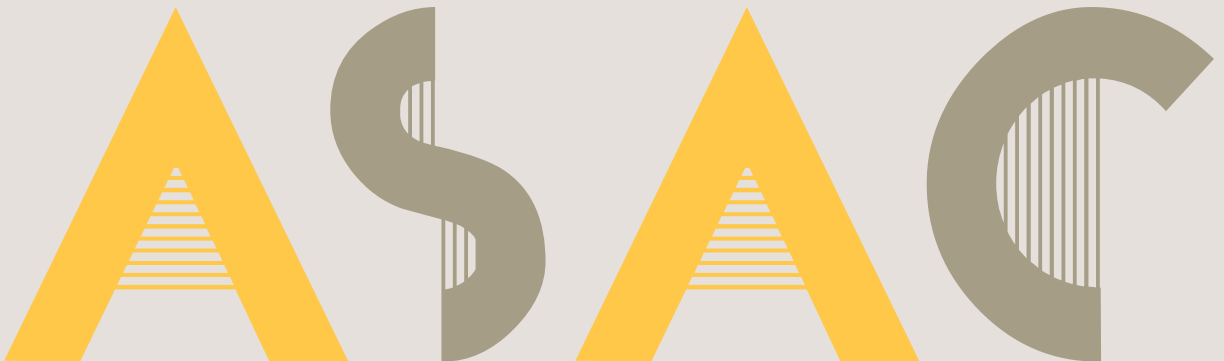
수시적인 섭외를 통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에서는 홍보에 대한 여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욱 폭넓고 정교하게 공연을 매개로 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홍보가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작하는 공연 또한 사전 준비단계를 중기적으로 수립하면서 거기에 투여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것입니다. 사전에 기획공연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제작 공연에 대한 치밀하고 정교한 준비는 물론 공연의 시기에 대한 결정도 효과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 그림 2013년 기본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작공연으로는 2011년 안산과 서울에서 첫 선을 보였던 창작음악극 [에릭사티]가 한국공연예술센터 기획 공연으로 선정되어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약 12회 정도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작 콘텐츠를 개발하여 더 확대된 관객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확산시키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관객들의 호평과 심사를 통한 한국공연예술센터 기획공연 선정은 제작공연장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창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동제작으로는 국립극단,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두 번째로 시도하는 한태숙 연출의 [안티고네]입니다. 국립극단과는 지속적으로 정통 연극 작품을 선보이려고 하는데 '오이디푸스'와 '아위타운'의 한태숙 연출의 [안티고네] 또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작품입니다. 또 시리즈 기획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우리뮤지컬의 힘!' 시리즈 일곱 번째 작품으로는 김광석의 노래들로 구성된 '김종욱찾기', '당신이 잠든 사이'의 장유정 작·연출의 [그날들이] 선정되었습니다.

● ● 공연제작 기획 단계부터 함께 하기로 한 공연으로 특히 김광석의 노래를 젊은 시절에 향유하신 4, 50대의 관객들이 관심 가질만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우리뮤지컬의 힘' 콘서트가 4월에 [응답하라! 우리뮤지컬!]이라는 타이틀로 공연 준비 중입니다. 우수 소극장 시리즈는 극단 연우무대의 여행시리즈 중 인기 만발인 [인디아블로그]와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신진작가들을 위한 기획 '봄작가겨울무대' 최우수 선정작인 [뽕]이 별무리에서 공연됩니다.

대사연기보다 '몸짓'연기를 중심으로 하는 장르인 춤, 마임, 신체극 등의 장르들을 모아 '몸짓'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획되는 [ASAC 몸짓페스티벌]이 가을에 첫 선을 보입니다. 또한 지역 공연예술인들의 한마당 [ASAC공연예술제]도 하반기에 함께 합니다. ASAC 콘서트시리즈는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와 [주미강 & 손열음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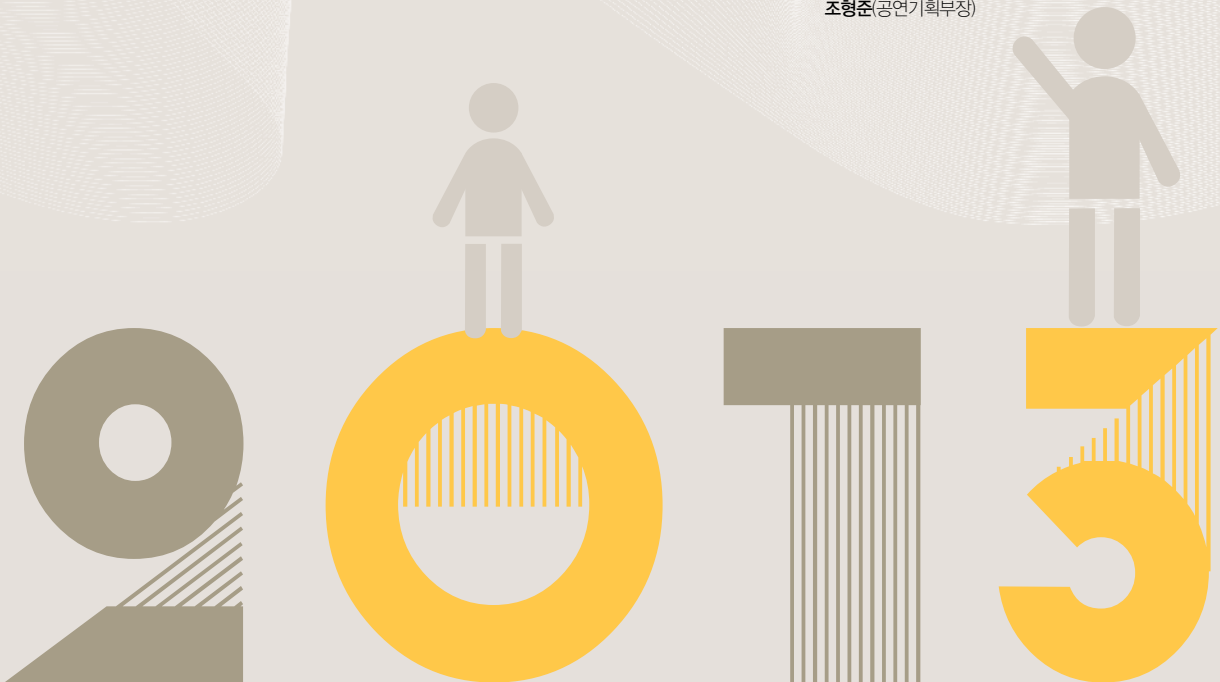


● ● 아동 가족 대상의 ASAC가족예술극장 시리즈로는 1월 영어뮤지컬 [Five fools and you], 5월 어린이날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선보입니다. 이밖에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크리스마스 '아르츠콘서트'와 송년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 숨 가쁘게 2013년도 기획 프로그램의 열개를 말씀드렸지만, 개관 10주년이 되는 2014를 위한 준비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격년제로 계획된 두 번째 'ASAC 창작 희곡공모'가 진행되면서 선정작에 대한 제작검토에 돌입할 것이며 10주년 기념 제작공연 가족뮤지컬 창작 작업도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좋은 공연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를 통해 지역관객들과 공연예술계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로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ASAC 기획프로그램 시리즈는 이 두 방향을 목표로 더 많은 준비 그리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단지 좋은 공연이 아니라 '공연'을 매개로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형준(공연기획부장)





# 2013 공연프로그램

ASAC FOCUS  
2013 공연프로그램



# 1

## 영어뮤지컬 'Five Fools And You'

장르 뮤지컬 | 장소 달맞이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영어연극 전문극장 라트어린이극장에서 제작하여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70,000여 명이 관람한 인기 영어 뮤지컬 Five Fools and You는 영어스토리텔링 버전. 스토리텔링쇼로 새롭게 각색된 Five Fools and You는 단순히 보는 공연이 아니라, 관객과 배우가 함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색다른 형식의 공연

## 스티브 바라카트 '스윗 발렌타인'

장르 클래식 | 장소 해돋이

Rainbow Bridge, Flying 등 라디오, CF 배경 음악의 주인공! 대중을 사로잡는 환상의 팝 사운드, 드라마틱한 프로그래밍, 화려한 조명이 함께하는 라이브, 발렌타인데이 연인들을 위한 최고의 로맨틱 콘서트

\* 프로그램 : Rainbow Bridge, Whistler Song, Flying 외

\* 출연 : 스티브 바라카트(피아노), 밴드, 스트링 콰르텟

# 2



# 3

## 황태자 루돌프

장르 뮤지컬 | 장소 해돋이

감동적인 선율의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지킬앤하이드>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 혼과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로 2012년을 사로잡은 최고의 흥행작 <엘리자벳>을 제작한 오스트리아 극장협회(VBW)가 만나 탄생시킨 최고의 작품! 안재욱, 임태경, 박은택, 옥주현, 최유하, 김보경, 민영기 등 초호화 캐스팅!

## 2013 ASAC콘서트

[응답하라, 우리뮤지컬!]

장르 복합 | 장소 해돋이

2013년도 봄맞이 음악회공연. 유명 가요와 뮤지컬 장면이 함께 하는 화려한 뮤지컬 갈라쇼

# 4

## 그와 그녀의 목요일

장르 연극 | 장소 달맞이

저명한 역사학자 '그'와 은퇴한 국제분쟁 전문 기자 '그녀'의 이야기다. 친구와 연인 사이에 있는 두 인물 간의 사랑과 갈등, 화해를 그리며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배우 배종옥과 조재현이 배역을 맡았으며 정재은, 정웅인이 더블 캐스팅돼 기대를 모은다.

## 오즈의 마법사

장르 뮤지컬 | 장소 해돋이

한일합작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제2탄! 전세계 최고의 걸작 '오즈의 마법사'가 마스크플레이뮤지컬로 탄생! 45년 전통의 일본 극단 히코센(HIKOSEN) 최고의 히트작!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스크플레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탄생!

# 5

## 안티고네(예정작품)

장르 연극 | 장소 달맞이

국립극단의 신규작품 공동제작 추진,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 중 하나인 소포클레스의 희곡으로, 국가와 권력을 상징하는 크레온과 개인의 양심을 상징하는 안티고네의 갈등과 여러 인물들 간의 복잡하고 모순된 요소를 심오하게 표현해 내며 현대를 살아가는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 금난새청소년음악회

장르 클래식 | 장소 해돋이

금난새는 인천시향 상임 지휘자이자 유라시아 필하모닉의 예술감독 겸 CEO로도 활동 중인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휘자 중 하나로, 지난 1994년부터 20여 년간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진행해오며 클래식 대중화를 선도해왔다.



### 2013 안산몸짓축제

장르 다원 | 장소 해돋이

춤, 무용, 마임, 신체극, 비보잉 등 다양하고 현대적인 몸짓을 표현하는 다원예술축제



### 클라라 주미 강 & 손열음 듀오 콘서트

장르 클래식 | 장소 해돋이

2010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쿠르 우승, 차이콥스키 콩쿠르 2위 등 세계가 인정한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펼치는 무대

### 인디아블로그 시즌2

장르 연극 | 장소 별무리

올해도 소극장용 우수공연을 유치, 관객들이 가까워서 수준 높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배우, 연출, 스태프이 함께한 두 달여간의 인도여행을 바탕으로 생생한 인도여행의 여정을 무대 위로 올린 본격 로드씨어터 '인디아블로그 시즌2'와 2012년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차세대공연가시리즈 <불작가, 겨울무대>에 올랐던 정소정 작, 김관 연출의 '뿔' 등 총 2편의 우수소극장시리즈를 공연한다.

### 뮤지컬 그날들

장르 뮤지컬 | 장소 해돋이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변해가네', '거리에서'... 1990년대 청춘들의 가슴을 울린 가수 고(故) 김광석의 노래로 엮은 뮤지컬 '그날들'은 '김종욱 찾기'의 장유정 연출이 맡아 5년 만의 신작으로 선보이게 된다.

### 윤한 콘서트

장르 콘서트 | 장소 달맞이

단독 콘서트 연속 매진 각종 뮤직차트 실시간 음반판매량 1위, MBC-TV <아름다운 콘서트> 공동 MC겸 음악감독, 국내 최초 액터-뮤지션 뮤지컬 <모비딕> 주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클리 음대 출신인 윤한은 공연계의 떠오르는 블루칩이다. 전곡 작사, 작곡, 보컬, 프로듀싱, 피아노를 넘어 뮤지컬까지,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는 넘치는 매력의 소유자 팝 아티스트 윤한과의 의미있는 무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2013 ASAC공연예술제

장르 연극 | 장소 별무리

안산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도와 자생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창작의 지를 높이고 단체 간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에 큰 역할을 기대함

### 음악극 에릭사티

장르 음악극 |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2011년 자체제작한 음악극 '에릭사티'를 한국공연예술센터(HanPAC)와 공동으로 재공연을 추진,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예정



# Interview

최석규는 공연 기획사 ASIANOW의 대표이며, 춘천마임 축제 부예술감독 역임.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of London 연극실기석사과정 아시아 프로듀서 네트워크 창시



# 새롭게 바뀌는 2013년 안산거리극축제 ASAF

거리에서 도시와 인간을 재발견하고  
가치와 놀이를 함께 하는 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13이 올해로 개최 9회째를 맞는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지난 2005년 안산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시작됐으며, 개최이후 꾸준한 관람객 증가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거리예술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2013년에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도시의 변신, 거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사령탑을 맡은 최석규 예술감독을 만나, 기존 거리극 축제의 계승과, 변신을 꾀하면서 그의 색깔이 입혀진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미리 엿보기로 한다. <편집자>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과 함께 예술을 즐겼던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의 중심지에 위치한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되며, 지난해 축제와 확 바뀐 과감한 시도와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13년 축제는 시민들의 기대와 5월의 푸름 속에서 안산만의 제작공연과 다양한 거리예술, 국내외 우수공연으로 거리극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최석규 예술감독의 2013 차별화전략은 첫 번째로 거리극에서 거리예술로의 승화 내지는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안산거리극축제가 거리극의 형태로 주로 치러졌다면 거리 예술로 도시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처럼 거리극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안산의 도시적 환경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했다.

“연극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 거리극 공연에서 특정공간공연(site-specific per-

formance), 설치미술(installation art), 미디어 아트(media art), 사운드 아트(sound art) 등으로 확대 향유층의 취향을 고려, 좀 더 다양한 볼거리, 들을 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안산이 가지고 있는 축제의 공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심공간이다. 이 공간을 어떻게 축제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했다. 도심 공간을 극대화하기로 하면서 <도심일상>의 공간을 <일탈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싶었다.”

850m 도심공간, 광덕로는 그간 우리가 ‘거리’하면 꿈꿀 수 없었던 것, 상상으로도 꿈꾸지 않았던 것들을 시각적, 청각적, 밤 공연 등 공연 형태의 외연을 확대해 가는 도시공간의 변형이 주안점이라는 설명이다.



“외부에서 말하기를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열리는 공간은 축제하기에 좋은 공간이 아니라고 들 한다. 나는 혁명가는 아니다. 지난 세월의 축제 흔적들을 버리는 차원은 아니다. 창작보다 이전의 특징들을 잘 잡아 내면서, 지금 이 시기 거리 예술의 동향이 어떤지 보여주고 계층 간 다양한 관객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지 고민했다”고 최 감독은 말한다.

### 대형도시 광장(안산문화광장)을 축제의 공간으로...

최석규 예술 감독은 부임 후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안산문화광장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도심형 축제의 광장으로 변형시키는 게 주된 미션이었다. 공간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젝트(미디어, 설치미술, 콘서트)를 개발하여 안산거리극축제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세웠다.

거리예술은 일상의 공간을 특별한 공간으로 바꿔 주며  
인간의 삶에 변화를 주고  
관객과 예술가의 경계를 없애



도시와 사회의 풍경을 바꾸어 놓게 된다.

그러면서 일상의 공간을 특별한 공간과 기억의 광장으로 변화시키고, 열정의 에너지로 도시의 색을 바꿔주는, 이것이 바로 거리 예술이라는 것이다. 그간 안산적인 것, 안산의 프로젝트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해부터 Made in Ansan 프로젝트로 안산적인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개막과 폐막을 안산적인 것으로 구성, 연출해서 밀도 있는 제작으로 <안산 사람들 : 가제>주제 공연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노는 축제는 있지만 참여하고 생각으로 남는 축제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안산 사람들은 안산 사람들 사진을 배치하고 무용, 미디어 아트, 도심공간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자체제작 공연을 통해 축제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안산의 브랜드 작품 개발을 하고, 안산 특화형 제작공연을 통해 다른 거리극 축제와 차별한다는 콘셉트이다. 이를 위해 자체제작 시스템 구축과 협력 프로듀서 프로그램, 협력 아티스트 프로그램 등으로 협업을 강조하게 된다. 최 감독은 또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초청작, 공모선정작, 프린지 공연으로 구분, 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과 예술성이 높은 소규모 공연의 조화





로 관람객의 성향에 따라 축제 사이트의 영역을 구분하여 재구성해 볼 계획이다.

축제는 ASAF Choice, ASAF Contest, ASAF Fringe 세 영역으로 크게 대별되었다. ASAF Choice는 축제 미션과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안산에서 선정한 초청작으로 구성, 해외초청으로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뉴 서커스 공연 중심으로(프랑스, 캐나다, 호주) 국내 초청작은 검증된 국내 단체를 중심으로 신작 혹은 레퍼토리 작품이 초청될 예정이다. ASAF Contest는 국내 및 해외 공모를 통해 작품선정(해외공모는 2014년부터) 공모 심사를 통해 우수레퍼토리가 공연된다.

ASAF Fringe는 프린지, 스트리트 캠퍼스, 퓨처스의 통합, 신진 거리극 단체의 발굴과 육성과정인 방식이다. 이 가운데 축제를 즐기는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공간 프로젝트

트로는 한밤의 도심 콘서트, 모바일 하우스, 도심 속 컨테이너 숲 등이 있다.

“최대의 미션으로 고민한 것은 거리예술의 소통성 강화와 거리 예술의 개념과 장르를 확대하여 도심형 축제를 안산의 공간성, 역사성, 사회성과 연계하여 도시공간을 재인식하려는 노력이었다”

최석규 예술감독이 만드는 2013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안산 광덕로가 안산문화광장으로 이름을 바꾼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축제, 카니발... 일탈, 평등, 공동체성을 만끽하는 카니발로, 예술적 가치구현을 통한 도시축제와 문화관광상품화 될 최석규표 거리극 축제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취재\_ 박공주



매해 5월 안산 일대를 공연예술로 풍성하게 해주었던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2013년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2005년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어느덧 10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거리공연인 '버스킹'으로 시작하여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그 동안 국내외 다양하고 우수한 거리극을 선보이며 명실상부 국내최고의 공연예술축제로 자리잡았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290개 작품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통해 선보였으며 누적 관람객수는 366만 명에 이른다.

2013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도시의 변신, 거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거리에서 도시와 인간을 재발견 하고 가치와 놀이를 함께 하는 축제로 거듭나고자 한다.

Urban Space Project



# Urban Space Project



## <2013안산국제거리극축제>

- 기간 : 2013. 5. 3(금) ~ 5. 5(일)
- 장소 : 안산문화광장
- 주제 : 도시의 변신, 거리의 재발견

# Urban Space Project

## 2013 확~ 달라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13년 가장 큰 변화는 안산만의 제작공연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Made In Ansan Project'로 불리는 제작공연은 안산의 공간과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협력 아티스트와 협력 프로듀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5개월간 이들은 안산의 공간과 이야기를 조사하여 안산국제거리극축제만을 위한 차별화된 공연을 제작할 예정이다. 두 번째 변화는 'Urban Space Project'로 대표되는 도심형 축제 만들기이다. 이는 안산의 공간성, 역사성, 사회성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을 재인식하고 이를 도심형 축제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소인 안산문화광장(구 25시 광장)을 도심 축제광장으로 변모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도심 속에 컨테이너 숲을 조성하고 빌딩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뉴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 등 지금까지의 축제와는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2013년도 축제는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하여 관객과 예술가의 경계를 허물고, 도시와 사회의 풍경을 바꾸는 축제를 만들것자 한다. 이로써 예술적 가치구현을 실현하여 도시축제와 문화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것자 한다. 2013년 5월 안산을 일탈과 자유를 만끽하는 카니발 현장으로 만들 2013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1년여의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준비 중이다. 2013년 확~ 달라진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

송지연(축제사무국)





# 안산의 20여 년 전, 아쉽지만 따뜻했던 염전이야기의 막을 내리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은 지난해 제1회 ASAC창작희곡공모를 실시, 총 9편의 작품을 심사하여 가작으로 <염전이야기>를 선정하였다. 안산을 배경이나 소재로 하여 '안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시도된 그 첫 번째 작업은 <염전이야기>였다.

1990년대 후반 산업화를 겪는 안산과 시흥 땅, 염전을 운영하던 풍식(아버지)의 가족이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며 벌어지는 일들을 10살 소녀 태지(풍식의 손녀)의 눈으로 바라본 따뜻하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연극이다. 안산의 역사를 기억하는 부모세대와 미래를 살아갈 자녀들이 함께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재적 특징이 있어 안산관객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지난 11월 22일에 시작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12월 2일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박해선 연출과 작가 김연민의 인터뷰로 이번 공연을 되짚어본다.



## 작가 김연민\_ 기억하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살다보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그럴 때면 정말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안산도 마찬가지로 지였습니다. 현재는 공단으로 유명한 안산이지만, 예전의 안산은 천일염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일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수인선과 함께, 언제부턴가 안산에서 염전이라는 기억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과 지역의 변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풍식은 한 가족의 가장이자, 우리 마을에서 언제부턴가 사라진 염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내일이면 잊혀져갈 기억이겠지만,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거쳐 간 인생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니까요. 부족한 작품의 빈 부분을 채워주신 연출님을 비롯한 배우, 스태프 분들... 언제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안산문화재단 관계자 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작품 속 가족의 모습을 통해 잊혀져가던 기억을 잠시만이라도 추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전이야기

## 연출가의 글\_ 과거로의 여행

어렸을 적 등근 달을 바라보며 기억에도 없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왠지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뭔가 달라졌을 것 같은 어릴 적의 현실들. 나에게 더 친절했을 것 같은 할머니, 더 다정했을 것 같은 아버지, 그리고 더 화목했을 것 같은 우리집을 그리며 저는 달 너머 저편에 살고 있을 것 같은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한 작품이 <염전 이야기>입니다. 외삼촌의 갑작스런 방문과 함께 안산의 도시화는 태지의 집안으로 들어오고, 할아버지는 은근히 타오르던 숯불 같은 인생을 조용히 마감합니다. 마치 염전의 소금이 비에 젖어 녹아내리듯 그렇게 말이죠.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오히려 잔잔한 이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도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속에 있고 있던 나의 가족을 떠올리며 그들이 남겼던 이야기를 되새겨 보기를 말이죠.

안산문화재단의 제1회 ASAC창작희곡공모 당선작과 인연을 맺고, 김연민이라는 젊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작가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희곡공모를 통해 양질의 지역 창작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서울과 안산에서 참여해 즐거운 연습시간을 함께해준 배우들과 스태프들, 어린 태지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김수아 어린이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김수진(공연기획부)





# 신개념 영어스토리텔링쇼 Five Fools and You

## <다섯 명의 유쾌한 바보들> 이야기



### 신나게 웃고 즐기는 요절복통 서커스 만들기, Five Fools and You!

‘Five Fools and You’는 지난 2006년 초연 이래, 3번의 공연을 통해 7만여 명의 관객이 관람한 ‘Five Fools’ 공연을 새로운 형식의 영어 스토리텔링 쇼로 각색한 작품이다. ‘Five Fools and You’는 세 명의 스토리텔러들이 들려주는 유쾌한 다섯 바보들의 좌충우돌 서커스 만들기 이야기로 단순히 앉아서 관람하는 공연이 아니라, 관객과 배우가 함께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 색다른 형식의 공연이다. 서커스 공연을 시작하려 하지만, 서커스단의 기대주이자, 새로운 스타인 무용수가 갑자기 말문을 닫아 버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피소드로 이야기는 진행된다.

### 배우와 관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신개념 영어스토리텔링쇼!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무대 위에서 연주를 같이 하기도 하고, 힘을 모아 쓰러진 광대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어 공연을 완성한다. 우스꽝스럽고 어설픈 바보들을 보며 어린이들은 까르르 웃어대다가도 어느새 친구가 되어 서로 돕는다. 공연을 함께 완성해 가는 동안 관객들은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사고하고, 소통하게 된다.

## 〈주요 스텝 프로필〉

### 원작 및 前 예술감독 - 故 Roger Rynd

극단 REM의 예술 감독, 극작가, 연출가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주에서 주로 활동했다. 2000년 호주 국제 장애인 올림픽 개막행사 'Most successful ever' 작·연출했으며, 1970년 뉴질랜드 어린이 축제 비평상, 1988년 한국 ASSITEJ 최우수 연극, 디자인, 연기상, 서울 청중상 수상 최우수 연기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2008년 'Hi Seoul Festival 여름' 예술 감독을 맡았다.

또한, 2002년부터 라트어린극장의 예술 감독으로 'The Little Dragon', 'Strange Soup', 'Shadow Thief', 'Twelve Singing Animals', 'Five Fools'를 연출하였다.

### 연출 및 각색 - Paul Matthews

지난 2003년부터 라트어린극장의 'The Little Dragon', 'Strange Soup', 'Shadow Thief', 'Twelve Singing Animals', 'Five Fools'에서 배우로 활동해 온 Paul Matthews는 영국 Middlesex University에서 연기를 전공한 후, 오랫동안 영국과 한국에서 연기자의 길을 걸어왔다. 라트어린극장에서 그는 또한 'The Little Dragon' 연출을 맡았으며, 드라마티크 보조, 리허설 지도와 미술자문, 하모니카 지도 등을 하였고, 'English Musical Workshop'에서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연기 지도와 발표회 연출을 맡았다.

2011년에는 극단 목화에서 '북청 사자야 놀자',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태풍' 등 번역과 자막을 맡아 활동하였다.

### 작곡 - Peter Winkler

전문음악과 지역사회 음악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으며 작곡가이자 음악감독 겸 강사로 활동해온 작곡가로 호주의 유일한 록 음악학교인 Bondi Youth Wave를 공동설립하였다. 1998년에는 호주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 음악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방정부로부터 Roz Bower상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 음악감독을 맡았다.

### 드라마티그 - Catherine Pease

호주 REM 시어터의 창단 멤버이자 핵심일원으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관객 개발 기획 책임자이자 시드니 Cricket and Sports Ground Trust의 관객 개발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Queensland Performing Arts Trust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REM 시어터 및 다른 극단들과의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드라마티그로 활동하였으며, 라트어린극장의 'The Little Dragon', 'Strange Soup', 'Shadow Thief', 'Twelve Singing Animals', 'Five Fools' 드라마티그 및 연출로 활동하였다. 🌈

김동열(공연기획부)

## 공연정보

- 공연일시 : 2013. 1. 18(금) 11:00, 14:00 / 19(토) 11:00, 14:00(2일 4회)
- 공연장소 : 달맞이극장
- 관람등급 : 24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어린이 입장불가)
- 소요시간 : 60분
- 할 인 율 : 전담회원 10%, 20인 이상 단체 30%
- 관 램 료 : 전석 25,000원
- 공연문의 : 080-481-4000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2013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 Sweet Valentin

가장 탁월한 감각의 뉴 에이지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언제 들어도 달콤한 그 음악,  
레인보우 브릿지가 드디어 밴드와 함께 내한한다. 2011~12, 2년 연속 예술의전당  
공연 <Sweet Concert> 전석 매진의 신화를 이룬 공연을 직접 느껴보자.



## 공연 정보

### • 공연 일정

2013년 2월 16일(토) 17: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 프로그램

Rainbow Bridge,  
The Whistler Song, Flying 외

### • 출연

스티브 바라캣(피아노), 밴드 외

# Steve Barakatt

## 스티브 바라캣의 음악은 '사랑' 이다!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주는 멜로디, 스티브 바라캣이 밸런타인데이 에 맞춰 팬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간다. '레인보우 브릿지', '휘슬러 송' 등 TV와 라디오의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는 친숙한 음악의 주인공으로써, 이번 공연은 최근 그가 보여주었던 피아노 솔로 무대를 탈피해 밴드와 함께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사랑스러운 계절에 맞춰서 무엇보다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음악들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2013년 2월 스티브 바라캣의 음악에 빠져보자.

## 이게 진짜 스티브 바라캣이다! 스티브 바라캣 With BAND!

지난 2년간, 그는 피아노 솔로, 가수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또한 최근 9월에는 자신이 작곡한 '에드 비람 에티넘' 교향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그의 음악성 다양함을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그의 곡, 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밴드와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실 밴드와의 결합을 통해 그는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옷을 입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일렉트릭 악기가 가미된 신선하고 개성 넘치는 사운드와 감미로운 멜로디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서 진짜 스티브 바라캣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오미현(공연기획부)



# 2013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공모작 참가안내

이 시대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은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무료지원'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가 2013년 공연을 찾습니다. 대관료 걱정 없이 작품과 관객과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는 6일의 자유! 예술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01 공모내용

1) 일정 : 2013년도 아래의 기간 중 공연 가능한 작품

구분	일정
1회	4. 9(화) ~ 4. 14(일)
2회	7. 16(화) ~ 7. 21(일)
3회	9. 10(화) ~ 9. 15(일)
4회	10. 29(화) ~ 11. 3(일)

※ 셋업, 공연, 철수가 포함된 기간임

2) 장소 : 별무리극장(140석)

3) 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전 장르

### ◎ 지원 자격

- 1) 공연 경력 1년 이상의 예술가 및 전문공연예술단체
- 2) 1단체 1작품 신청
- 3) 복수 지원의 경우, 단체의 소재지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안산시, 경기도, 기타 지역 순으로 선정

※ 대표자 및 단체의 근거지 확인자료 제출 필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 ◎ 지원 제한 대상

- 1) 학생(청소년,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 2) 종교단체의 예술행사
- 3)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동일 작품  
※ 같은 단체라도 작품이 다르면 신청 가능
- 4) 최근 3년간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선정작 또는 안산예당 기획공연 및 공동기획공연  
※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에 선정된 단체(개인)가 당해연도 국가 및 지자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오픈스페이스 공연기간의 대관료와 부대시설료를 납부해야합니다.(동일단체에 중복지원을 제한하기 위함)

### ◎ 안산문화재단 지원내용

- 1) 공연장 대관료 전액무료
- 2) 기본홍보 지원(트위터, 페이스북, 전광판, 로비영상 외) 및 홍보물 제작(웹디자인, 전단, 포스터, 엑스배너)
- 3) 공연의 대표수입 및 인쇄물 판매수입은 공연단체에 귀속



## ◎ 지원 시 유의사항

- 1) 유료 티켓 판매를 원칙으로 함
- 2) 티켓가격, 할인율은 전당과 협의하여 결정
- 3) 관객홍보마케팅은 공연단에서 주체적으로 진행
- 4) 무대기술인력은 지원되지 않음  
(예 : 크루, 오퍼, 기술감독 등)

## 02 진행사항

### ◎ 서류접수 : 이메일 / 우편 / 내방

- 1) 기간 : 2012년 12월 18일(화) ~ 2013년 1월 21일(월) 18:00
-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외 공연소개자료  
※ 지원신청서는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ansanart.com)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3)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내방(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해야함)  
- 이메일 : asac7@naver.com  
- 우편·내방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담당 / (우)425-020
- 4) 문의 : 031-481-4022 김수진

### ◎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전당양식)
- 2) 심의에 필요한 각종자료  
- 창작초연 시 : 대본, 악보, 연출 및 무대구성 계획서 등  
- 기존공연의 재공연 시 : 공연실적 자료(공연내용, 홍보물, 언론보도 등)  
- 최근 1년간 신청인/단체의 주요 활동 경력 증빙자료(사진, 영상자료 등)  
※ 접수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영상물, 프로그램 및 전단 등)

### ◎ 추진일정

- 1) 서류접수 : 2012년 12월 18일(화) ~ 2013년 1월 21일(월) 18:00
- 2) 심사  
- 신청서류 및 자격요건 내부 심사
- 3) 선정작 발표  
- 일정 : 2013년 1월 24일(목)  
- 방법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4) 오리엔테이션  
- 일정 : 2013년 1월 30일(수) 시간 추후공지  
- 장소 : 안산문화재단 회의실

### ◎ 심사 및 선정원칙

- 1) 심의위원이 신청단체 또는 신청 작품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작품 심의에서 제외(예시 : 신청 작품의 출연자, 연출자 등으로 관련되는 경우)
- 2) 선정 작품이 차후이라도 심의위원과 관련이 있을 때는 선정 취소

### ◎ 작품심사기준

- 1) 신청 작품 프로그램의 작품성, 예술성,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 2)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충실성
- 3) 신청자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 4) 스태프의 전문성과 출연진 구성 및 예술적 역량

### ◎ 기타사항

- 1)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 중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2)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미비는 심사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3) 사업내용 변경시 안산문화재단 사전 승인필수  
※ 별첨\_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신청지원서

김수진(공연기획부)

## 겨울방학 체험전

# 미술관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세계문화유적지, 유럽 도시철도 디오라마, 세계의 범선과 철도모형박물관까지...  
신기한 모형들이 가득한 미술관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보자.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전시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미술관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은 세계의 유명 문화 유적지, 유럽 도시철도 디오라마, 세계의 범선과 철도모형박물관 등으로 구성된 미니어치 모형 전시로 약 120여 점의 정교하게 제작된 모형작품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형 체험전시다.

'미술관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은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희귀한 범선들과 기차모형을 통해 보는 즐거움과 함께 추억까지 담아갈 수 있는 유익한 전시다.

특히, 기적소리를 내며 철로를 달리는 기관차와 영화 속에서 보아오던 범선들은 아이들이 꿈꾸

었던 환상의 세계를 선사할 것이다. 이번 체험전에 전시되고 있는 모든 전시물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모형을 배경으로 자유로운 사진촬영이 가능하며, 모든 작품에는 상세한 설명이 더해져 마치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독도 만들기, 에펠탑 만들기 등 직접 모형을 제작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신나는 겨울방학, 신기하고 놀라운 모형들이 가득한 미술관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자.







## ■ 전시구성

### • 세계문화유적 미니어처

정확한 비례는 물론 휴점도를 이용해 질감까지 살린 거석상, 자유의 여신상, 워싱턴 기념비, 룽먼석굴, 아부심벨 신전, 콜로세움, 피사의 사탑, 피라미드, 스팅크스, 광안대교, 독도 등을 재현

### • 유럽도시철도 디오라마 모형

철로를 달리는 기차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펼쳐진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생동감 넘치는 사실을 그대로 재현

#### ※ 디오라마란?

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하여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는 것. 실제 상황을 모형으로 재현한 것을 말한다.

### • 세계의 범선 미니어처

유톨란트호, 타이타닉, 캐리비안의 해적과 같은 영화에서 접했던 범선들을 비롯하여 빅토리오, 그레이트 리퍼블릭호까지 시대별로 직접 바다를 누리며 항해했던 범선들을 제작하여 전시

### • 철도모형박물관

세계의 유명한 기차들의 모형을 시대별로 전시하여 기차의 발전과정과 역사를 한눈에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 오토라마 모형

자동차 디오라마인 오토라마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 주유·점검 중인 상황 등 우리생활의 일부분이 된 자동차의 모든 모습을 다채롭게 표현





★ 만들기 체험

① 독도모형 만들기

② 에펠탑 만들기

③ 집 모형 만들기

\* 체험비 : 각 3,000원(현장접수)



■ 전시개요

• 전시기간 : 2012. 12. 22(토) ~ 2013. 3. 3(일)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관

• 관람시간 : 10:00 ~ 18:00(17:30 입장마감)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 입장료 : 일반 10,000원, 전당회원 9,000원

단체(20인 이상) 8,000원

• 주최·주관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준아트

• 문의 : 031-481-4093





## 제3회 난타콘서트

# “세상을 두드리다~!”

신나는 K-POP과 국악장단을 이용한 난타~!  
재활용품과 차이나드럼을 이용한 타악퍼포먼스~!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어 연주하는 아리랑 판타지아~!  
화려한 NANTA in ANSAN의 타악퍼포먼스로  
여러분들의 모든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 Program

에코 파이프  
여행을 떠나요  
러비더비  
하늘, 바람, 그리고 환희  
비트 플라워  
어울림  
풍선의 꿈  
무한질주



### NANTA in ANSAN 소개

현대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단절되어 가고, 개인화 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워, 세대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하고자 2010년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NANTA in ANSAN이 안산에 등지를 틀었습니다.

NANTA in ANSAN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국악장단과 대중음악을 접목시킨 유아난타 교육, 초·중·고 방과 후 학교수업, 기업연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공연, 방방곡곡 찾아다니는 문화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ANTA in ANSAN은 누구나 편안하고, 즐겁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 일시 : 2013. 1. 12(토) 오후 7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문의 : 031-408-8305

\* 본 공연은 무료입장 감동후불제로 공연을 보시고 감동하신 만큼만 공연료를 내시면 됩니다.  
(수익금은 안산지역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소중하게 쓰입니다.)

\* 좌석이 한정되어있어 공연 30분 전 선착순 입장 \* 7세 이상 입장가능

# 기억에 머무르다

## 2013 이루마 콘서트

섬세한 감성과 깊은 울림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연주 공연 중 (기침 많은 공연 횡수, 기침 많은 관객이 관람한 공연)  
2013년, 그의 다음 시적을 보여 주는 <기억에 머무르다> 콘서트!

이루마 음악의 10년을 정리한 2011년의 베스트 앨범 발매와 성공적인 전국투어 이후,  
다시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난 10년간의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의 기억을 피아노 선율로 그려 낸  
이루마의 4년 만의 정규 앨범 [기억에 머무르다 - Stay In Memory]의 곡들을 공연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애길 들었어요, 이루마의 연주음악을 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제가 연주할 때 바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곡을 썼을 때 처음 연주했을 때로 돌아간 듯 한...  
그리고 그 기억을 되새김질 하는...  
이 앨범을 듣고 있을 누군가가 또 얘기하겠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바람도 멈추고... 빛도 멈추고...  
초침도 멈추고... 모든 게 멈춘 이 시간...’  
저는 그렇게 기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이루마가 앨범으로 기록해 놓은 순간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며, 그 추억들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일시 : 2013. 1. 20(일) 오후 4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예매 : 인터파크, 옥션티켓
- 문의 : 1588-3154
- 주최 및 주관 : SW엔터테인먼트





그림 속 신화이야기 VI

##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면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판도라〉

## Pandora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판도라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다. 신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벌이자,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불을 받은 인류에 대한 징벌로 제우스가 판도라를 창조하여 세상에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와 『노동과 나날』에서 판도라를 '아름다운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다. 징벌의 대상으로 고안된 것치고는 탄생과정의 꽤나 화려하고, 그녀의 외모 또한 범상치 않았던 모양이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판도라〉 1886년경, 개인 소장



# Waterhouse

19세기 영국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판도라>를 보면, 아름다운 상아빛 피부를 뽐내며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황금빛 보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고 있다. 상자의 열린 틈으로 어두운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여인의 순진한 표정과 는 대조적으로 알 수 없는 불안을 전달한다. 결국 금지된 상자를 들여다보고 싶은 여인의 호기심이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 오고 말았으니, 뚜껑을 연 상자 속에서 불행과 질병, 고통 등 인간의 모든 해악들이 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 불을 차지한 인간을 향한 형벌, 판도라

판도라는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의 합작으로 탄생한 특별한 존재였다.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토스가 진흙을 빚어 여신들의 모습과 닮은 인체 형상을 만들고 목소리와 힘을 불어넣자, 아테나가 그에 직접 만든 옷과 허리띠를 둘러주고 면사포를 씌워주었다. 다른 신들도 그녀에게 여러 선물을 선사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매력을, 헤르메스는 속임수와 아첨, 꾀와 같은 교활한 심성을 심어 주었다. 이렇게 탄생한 최초의 여성에게 제우스는 '판도라'라는 이름을 부여했는데, 이는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녔다.

제우스가 이처럼 공들여 판도라를 창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인류에게 재앙의 불씨가 되었을까?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의 일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아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형 프로메테우스와 '뒤늦게 아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티탄족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제우스와 티탄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자 동족의 편에 서지 않고 제우스의 편에 섰다. 제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 둘에게 세상을 정비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그것은 신의 뜻 안에서 살아갈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부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신중치 못한 에피메테우스는 선물을 동물들에게 서둘러 모두 나눠주었고, 막상 마지막 피조물인 인간의 차례가 되자 선사할 선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 에피메테우스는 형인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에게 줄 선물을 부탁했고, 피조물 중 인간을 가장 사랑한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뜻을 거역하고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한다.

니콜라스 레니에 <허영심의 알레고리 - 판도라> 1626



불을 획득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익힌 음식을 먹고, 도구를 만들 수 있었으며,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자신의 명을 어긴 프로메테우스를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쇠사슬로 바위산에 묶고는 자신의 신조인 독수리로 하여금 그의 간을 쪼아 먹도록 하는 형벌을 내렸다. 프로메테우스의 상처 입은 간은 매일 재생되었고, 형벌은 삼천 년간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불을 하사받은 인간도 무사할 수 없었다. 제우스는 인간들을 벌하고자 판도라를 고안해 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아름답지만 교활하고 참을성 없는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매력에 빠져 들었고, 제우스의 선물은 그 어느 것도 받지 말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충고를 잊은 채,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 상자에 남은 마지막 선물

17세기 프랑스 화가 니콜라스 레니에는 그의 작품 속에서 판도라를 허영심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다. 레니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보물이 가득한 방 안에서 향아리의 입구를 열고 있는 판도라를 그렸는데, 이는 헤시오도스의 글에서 본래 판도라의 상자가 향아리로 언급된 것에 따른 묘사로 여겨진다. 판도라의 상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원래 판도라가 신에게서 인간세계로 올 때 가져온 것이라는 설과, 에피메테우스가 피조물들에게 선물하고 남은 것들을 담아놓은 상자라는 설이다.

판도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헤시오도스조



니콜라스 레니에 <허영심의 알레고리 - 판도라> 1626

Nicolas Régnier





철 조세프 르페브르 <판도라> 1882, 개인소장

# Jules Joseph Lefebvre

글쓴이 강은주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미술에 관한 다양한 글쓰기와 전시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연구원으로 있다.

차 상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허영심과 호기심에 사로잡힌 판도라는 남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선물 상자의 뚜껑을 열고 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인간에게 해로운 감정과 해악들이 쏟아져 나와 인간에게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으니, 후대의 사람들이 판도라를 ‘아름다운 재앙’이라 부를 만하다. 프랑스 화가 르페브르 역시 1882년 판도라를 그린 작품에서 상자 뚜껑에 손을 얹은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판도라의 모습을 그렸다. 놀란 판도라가 상자의 뚜껑을 급히 닫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모든 해로운 것들이 모두 이미 빠져나왔고, 남은 것은 오로지 상자의 밑바닥에 자리한 희망이었다.

판도라의 일화를 여성비하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성서 속의 이브의 이야기만큼이나 인류 최초의 여성을 경솔하고 부주의한 그래서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꾸어 본다면, 인류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것도 그녀의 몫이다. 인간이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판도라의 상자 안에 남은 희망 때문이지 않는가. 고통과 절망은 흘러서 사라지지만 마지막에 찾아오는 희망만은 언제나 남는다는 믿음.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화풍을 보여준 영국의 화가 와츠는 <희망>이라는 작품에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단 한 줄이 남은 리라를 뜯고 있는 장님의 모습으로 묘사한 바 있다. 표류하는 등근 대지가 위기에 처한 세상을 상징한다면, 눈을 가린 채 리라를 연주하는 여인은 위기에 처한 인류를 보여주는 듯하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여인이 한 줄의 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차마 놓을 수 없는 희망을 상징한다. 그러니 판도라의 일화가 전하는 것은 경솔함에 대한 경각이 아닌, 삶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두 번 열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희망을 놓을 수 없다. 🌈

# 연극, 그 종독의 매력에 빠져들다



---

## Part 5

‘희극’ 권하는 시대 속  
‘비극’을 예찬하다

## ‘웃음’ 권하는 시대의 비극(悲劇)

대개 사람들은 죽음과 공포, 절망과 파국으로 끝나는 이야기인 ‘비극’보다는 밝은 웃음과 행복한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해피엔딩의 ‘희극’을 좋아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금 대학로의 흥행코드는 ‘로맨틱’, ‘섹스어필’, ‘코미디’라는 세 단어로 압축된다.

연극보다는 뮤지컬계가 좀 더 심하게는 하지만, 실제 지금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작품들의 거의 3/2 이상이 앞서의 코드를 버무려 일반 대중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작품들이다. 물론 이런 경향은 사회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삶이 비극적일수록 이런 고통스런 현실을 잊기 위해 대중문화는 더욱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향해 치닫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동, 서양을 무론하고 일반 대중의 취향이 이렇듯 비극보다는 희극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과 현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칭송받는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비극’이라는 데 있다.

〈외디푸스왕〉이나 〈엘렉트라〉, 〈메디아〉 등 잔혹한 복수와 끔찍한 죽음으로 얼룩진 그리스 비극이 그러하고, 연극의 대명사로 칭송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걸작으로서 〈햄릿〉, 〈맥베드〉, 〈리어왕〉 등 일련의 주요한 비극 작품들이 그러하며, 이후 헨리 짐스의 〈인형의 집〉으로부터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 이르는 수많은 근, 현대의 문학, 미술, 연극, 영화의 걸작들의 면면이 그러하다.

사실 연극 보는 재미의 핵심을 뜻하는 단어인 ‘극(劇)’ 속에는 ‘희극’과 ‘비극’의 의미가 모두 담겨져 있다. 뜻 문자인 한자 풀이로 살펴보면, ‘극(劇)’이라는 글자는 범 ‘호(虎)’에 돼지 ‘돈(豚)’, 그리고 칼 ‘도(刀)’의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다.

즉, 호랑이와 멧돼지의 생존을 건 치열한 칼부림(싸움)을 벌이는 것이 바로 ‘극(劇)’이라는 말이다. 서양에서는 이를 ‘conflict’(갈등)라고 칭한다. 사람들이 갈등과 충돌의 이야기로서 극(劇)적인 이야기를 즐겨하는 까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크고 작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희극’과 ‘비극’은 예술이 이러한 갈등을 다루는 주요한 두 가지 방식이다.

먼저 ‘희극’의 무기는 ‘웃음’이다.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날카로운 충돌 속에서, 예기치 않은 웃음의 요소를 찾아내 이를 이용해 갈등을 가볍게 뛰어 넘는 것이 바로 희극의 전략이다.

이에 비해 비극은 희극처럼 문제를 우회하느니, 차라리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나더라도 정면 돌파를 감행한다. 무대 위에 펼쳐진 비극이 곧 가혹한 현실의 그것과 같은 것이기에,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극의 전략이다.

물론 인생에 있어 '희극'과 '비극'의 전락은 둘 다 필요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늘 직시하면서 진지한 고뇌 가운데 항상 맞부딪혀 싸우려 고만 든다면 머지않아 그 사람은 죽거나 미쳐 버릴지도 모른다.

살다보면 한바탕 웃음으로 커다란 문제를 능청스레 눈감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마냥 웃어넘길 수는 없다.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삶을 옥죄고 있는 다양한 유, 무형의 굴레들과 우리의 목숨을 건 정면승부를 펼쳐야 한다. 위기에 처한 삶과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말이다.

오늘날 예술, 나아가 현실의 문제는 삶의 갈등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으로 '희극'와 '비극'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지금 '희극'을 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 죽어야 사는 이야기 '비극(悲劇)'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이어받아 셰익스피어는 '연극이란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극'은 인생에 있어 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존재하는 본성적인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다. 근친상간과 살해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으로 점철된 그리스 비극을 보며 사람들은 "저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적어도 나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라고 말한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무론하고 인간사는 사회 어디에서나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범하고 살해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 비극은 우리의 의식세계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무의식의 심연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대면하게 하는 고통스런 이야기이다.

혹자는 내 안에는 저런 괴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부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욕망의 본성을 결코 다룰 수 없다는 데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그리스 비극의 위대함은 인류가 이미 고대로부터 자신의 본성 깊숙이 아로 새겨져 있는 무의식적 욕망을 무대 위에 형상시킴으로써 정면승부를 감행했다는 데 있다.

그리스 비극이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다루고 있는 데 비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갈등을 다룬다. 예를 들어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와 그냥 현실에 안주한 채 살아야 하는 두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햄릿은 무엇이 양심과 정의와 선과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반대로 악과 불법과 부정의 길인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전자의 길을 선택할 때는 가혹한 희생이, 후자의 길에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다는 데 있다. 바로 이 순간, '햄릿'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된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선택하고 못하고 머뭇대고 있을 때, 당신은 곧 '햄릿'이다.

반면 <맥베드>는 선택을 감행한다. 그 역시 양 갈림길에 선다.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왕을 충심으로 보필하는 길과 그런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길이 그것이다.

전자의 길은 선의 길이지만 끝없는 희생과 충성을 바쳐야 하는데 비해, 후자의 길은 악의 길이지만 대신 최고 권력의 달콤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맥베드'도 순간 망설인다. 하지만 그는 점차 악하지만 달콤한 이득이 유혹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이윽고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 채 파멸한다. '햄릿'의 위대함은 망설임에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작은 이득이나 이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

과 신앙과 신념을 헌신짝 꿩개치듯 버리고, 기꺼이 악의 길을 걸어가는 '맥베드'의 욕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전 연극이자 인류 이야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대로 일컬어지는 그리스 비극과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통해, 인간 존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로서 비극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렇듯 우리는 위대한 비극과, 그 작품 속 인물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 앞에 서게 될 때 질문하게 된다.

대제 왜, 무엇이 한 인간의 삶을 이토록 끝없는 심연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일까? 왜 정의와 지혜로 이름 높았던 왕 '오이디푸스'는 비참하게 파멸해 가는가? 왜 고뇌하는 이성의 상징인 '햄릿'은 끊임없는 망설임 속에 허무한 죽음을 자초하는가? 왜 입센의 <인형의 집>의 행복한 가정은 끝내 산산조각 나야 하며, 왜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서 불량취의 가련한 영혼은 허물어져 버렸는가? 등등의 질문들 말이다.

물론 '비극'은 그것이 제 아무리 위대한 것일지라도, 삶을 관통하는 고난과 절망으로 부터의 직접적인 구원과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비극은 다만 그러한 고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지독하리만큼 끈질긴 질문을 던질 따름이다. 그러나 질문이 거듭될수록, 삶을 둘러싼 거짓과 위선의 두꺼운 껍질은 산산이 부서져 벗겨진다.

질문이 깊어질수록 진실은 적나라한 알몸을 드러낸다. 질문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우리를 혈뺀 영혼으로 빛 가운데 서게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된다.

희망찬 새해를 여는 첫 마당에 웃음 가득한 즐거운 '희극'보다 절망과 파국,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인 '비극'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

박준용 | 연극평론가 · 한양대 강사  
adzero@empal.com



바그너,  
그의 음악적  
철학

Wilhelm

Richard

Wagner

1924년, 야심만만한 청년장교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 왕국 바이로이트를 방문하였다. 그는 흥미 모해 마지않는 위대한 음악가의 아들 지그프리트를 만나 독일 민족의 우수성과 이를 음악적으로 고양시킨 바그너를 지극한 헌사로 찬양하였다. '우리가 이곳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의 정신으로 만든 칼날은 날카롭게 달구어졌습니다.'

그 말은 불행히도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로 실현되었다. 해마다 바이로이트 음악축제에 극빈 자격으로 초대받았던 청년장교 아돌프 히틀러는 '바그너의 정신으로 달구어진' 칼날을 들고 2차 대전을 감행하였으며 그 외종에서 대단히 야만적인 인종청소 작업, 곧 유태인을 세계인구 분포표에서 완전히 멸살하려는 야욕을 감행하였다.

히틀러는 단순한 편집광적 인물이 아니라 유럽의 정신사에 그 나름의 지적 체계를 갖춘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에 히틀러는 주로 신비 신앙, 최면술, 점성술, 인종론 등 신비주의와 인종적 편견에 가득 찬 서적을 탐독하였다. 그 외종에서 히틀러는 독일민족 패권주의를 도출해 냈으며 마침내 2차 대전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 이상으로 바그너를 선택하였다. 왜 하필 바그너였을까. 순한 음악가와 선구적인 예술가들 대신 왜 히틀러는 바그너를 선택했던 것일까.

19세기 초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이미 국민국가의 발전을 시작하여 봉건제를 극복하고 국내 시장 개발과 왕성한 대외 진출에 나섰지만 독일은 300여 개의 영방으로 분열된 채 극심한 정치적 쟁투와 경제적 후진성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욱이 나폴레옹이 독일을 지배하게 되자 독일인들은 일순간에 호전적인 민족주의로 돌아섰다. 프랑스에 맞서 독일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공동체를 희망하는 방향이었다.

이 열망을 성공시킨 사람이 비스마르크이다. 그는 1860년대에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배제하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 통일을 이룩하려는 '소독일주의 노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철혈 정책으로 유명한 그는 드디어 1870년에 보불 전쟁을 일으켜 나폴레옹에게 당한 독일 민족의 설움을 씻은 다음, 프랑스 권력의 상징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당당히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새로 탄생한 독일 제국에는 당연히 오스트리아가 배제되었으며 북독일 연방을 주축으로 남독일의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 등을 결속시킨 형태가 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음악가가 바그너다. 라이프치히에서 경찰 서기의 아들로 태어난 바그너는 출생 후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고 화가, 배우, 작가로 활동하던 루트비히 가이어를 의부로 맞았다. 아주 어릴 때 일어났으며 바그너는 루트비히와 친연적 관계를 맺었는데 그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바그너는 예술 방면에 재질을 나타낼 수 있었다. 선동적이고 편집광적인 10대를 보

낸 바그너는 20대에 벌써 작곡가 겸 지휘자로 뷔르츠부르크, 쾰니히스베르크, 파리 등지에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낭비벽과 원초적인 대결의식 때문에 언제나 경제적 고통과 시기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바그너는 「리엔치」, 「방황하는 네델란드인」 등을 속속 만들어냈다. 그가 이 같은 대작을 끝없이 빚어내고 그 자신의 기획과 설계로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을 짓게 된 데는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2세의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다.

바그너는 기존의 오페라가 독일의 예술성, 곧 음악성과 연극성이 결합된 창대한 새로운 것을 방해할 뿐이며 이 두 가지 요소가 창조적으로 결합된 ‘음악극’(Musikdrama)을 고안하였다. 당대를 폄하하던 이탈리아 오페라에 식상한 바그너는 오페라와 연극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악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화학 반응에 매달려 끝내 그 실험을 성공시켰다. 바그너는 모든 악극의 대본을 스스로 썼을 뿐만 아니라 무대 장치, 연출, 분장, 조명까지 직접 관장하면서 악극의 양식화를 선도하였다.

중요한 것은 바그너가 ‘악극’이라는 형식과 특징적인 기교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이다. 바그너는 그같은 장치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는가. 그것은 바로 독일의 민족주의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라틴어로 된 「오딧세이」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읽곤 했던 바그너는 그리스 신화와 비극 및 북구의 전설에 평생 심취하였다. 시와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바그너는 셰익스피어나 괴테 같은 고전주의 작품까지 섭렵하여 ‘문학의 음악화’를 통한 독일 정신의 구현에 필생을 걸었다.

이러한 작업의 백미가 바로 필생의 대작 「니벨룽겐의 반지」이다. 「니벨룽겐의 반지」는 4일에 걸쳐 계속 상연되는 4부작으로 오페라와 악극을 통틀어 가장 긴 작품이다. 바그너는 북유럽의 신화와 중세기의 서사시 「니벨룽겐의 노래」를 바탕으로 직접 대본을 쓰고 작곡을 하였다. 등장인물들은 장대하고 용감한 활약을 거듭 선보이고 있지만 그 의지의 원천은 개별 인물들의 개인적 충성심이나 용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나 운명론적으로 관련 맺고야 나는 어떤 숭고하면서도 악마적인 신비성에서 터져 나온다. 주인공 지그프리트의 보검이 바로 그것이다.

바그너는 자신이 이룩한 악극 양식 속에 수세기 동안 전해져 온 독일 영웅 무훈담과 북구 전설의 신비성을 총체적으로 결합시켜 세기말의 독일 민족주의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운을 고양시켰던 것이다. 독일 문화를 지배해 온 음울하고 원천적인 신비성은 바그너에 의해 총합되었으며 이는 곧 독일 민족이 경험한 영광과 오욕의 역사를 음악적으로 체현한 결과가 되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20세기의 새로운 오욕으로 이어졌다.





정윤수(음악칼럼니스트)

저서로 <클래식, 시대를 듣다>

<인공낙원 - 현대 도시문화와 삶에 관한 성찰> 등이 있다.

마침내 히틀러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으로 시작한 그의 야욕은 금세 유럽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소설가 토마스 만은 1911년에 쓴 에세이 '바그너의 예술에 대해'에서 "바그너의 작품에서 우리나라는 매혹적인 선율이 문득 내 귓가에 와 닿을 때면 언제나 나는 기쁨에 가득 차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일종의 향수와 청춘의 고통이 나를 뒤엎는 것이다"라고 썼다. 이같은 음악적 고백은 적어도 1920년대 말까지 지속된다. 하지만 히틀러가 등장하고 2차 대전이 벌어진 이후 토마스 만은 "바그너의 무한정한 열광적 충동은 그가 속한 세기의 모든 감성적 요소들, 혁명적 민주주의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국수주의적 요소들"도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다. 그 국수주의적 열망이 나치즘과 2차 대전으로 진화하는 것을 확인한 1940년, 토마스 만은 바그너의 작품을 냉정하게 돌아본다. 그는 '바그너를 변호하며'에서 "그의 의심스런 '예술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치스적 요소를 발견합니다. 이 관련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지리멸렬한 음향이 우연히도 귓가에 울려올 때면, 저는 오늘날까지도 전율에 몸을 떨며 그 음향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그것을 그토록 사랑했었던 것이 스스로도 의아할 지경"이라고 썼다.

독일 정신의 수호자였던 토마스 만은 바그너 음악에 두 번 전율을 한 셈이다. 한번은 '매혹적인 선율이 귓전에 외닿을 때'였고 30년 쯤 흐른 뒤에는 '지리멸렬한 음향이 우연히도 귓가에 울려올 때'였다. 토마스 만의 이러한 진술은 바그너의 음악에 스며있는 두 개의 상반된 지향, 그러니까 낡은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고 싶다는 욕망과 가능하다면 그것을 '독일 정신'으로 실천하고 싶다는 욕망을, 히틀러와 2차 대전을 통해 냉혹하게 확인했음을 증언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

문화 후원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정인광 원장,  
문옥선 소장

열정의 연주자,  
선한 관객, 좋은 음악

아침음악살롱  
후원으로 얻은  
소중한 나의 보물!

대부분의 공연이 오후나 저녁에 있어 오전 시간대의 공연장은 이따금 표를 예매하러 오는 사람들을 빼면 인적이 드물다. 특히 평일 오전은 한가롭고 조용하다. 그런데 지난달 마지막 주 목요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안산 문예당) 달맞이극장 로비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 날은 안산 문예당이 주최하고 BM산부인가가 후원하는 아침음악살롱(Morning Music Salon)이 있는 날. 홀수 달, 마지막 주 목요일 11시에는 어김없이 아침음악살롱의 아름다운 선율이 안산 문예당에 퍼졌다. 그러니까 이번 공연밴드 '하림 N 집시&피시 오케스트라'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아침음악살롱의 대미를 장식하는 프로그램. 2011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는 BM산부인과 정인광 원장과 문옥선 소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안산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 안산 문예당의 아침음악살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인광 원장(이하 정 원장) :** 제가 안산에서 BM산부인과를 개원한지 12년이 넘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진료를 한 덕분에 산모들과 그 가족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병원이 자리가 잡히면서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문 소장이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지요. 다행히 병원에 여유 공간도 있어 진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산모 대상의 태교 음악으로 시작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음악도 같이 하면 더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고, 점차 산모 외에 가족, 지역 주민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어요.

## 아침음악살롱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수준 높은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특히 주부들에게 인기인데요. 안산 문예당과는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됐나요?

**정 원장 :** BM작은음악회의 50회를 기점으로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저는 안산 문예당의 제안으로 음악회를 외부로 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까이서 음악을 접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지만 좀 더 쾌적한 장소에서 수준 높은 음악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구성에 푸른 아우성 대표를 초빙하는 등 행사를 계획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전문 공간을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태교음악회로 대관을 하면서 문예당과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문예당에서 감성적인 브런치 공연 아침음악회를 운영 중이었고, 거기에 BM산부인과가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 그렇게 시작한 'BM작은 음악회'가 거의 5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호응도 좋았고 꽤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정 원장 :** 초창기 음악회 준비 때가 기억납니다. 생각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더군요. 경제적인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연주

를 위한 무대 장치, 섭외 당일 팸플릿을 위한 자료수집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산모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도 일거리였죠. 다행히 출연진 중에 작은 음악회의 취지를 듣고 고등학교 음악선생님(1년 운영)이, 다음 해엔 이강민 지휘자가, 의정부시립합창단원이 1년, 그렇게 적극 참여하여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진행해주셨지요.

안산에서 활동하는 음악가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산모와 지역 주민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는 자부심이 50회의 수명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문 소장이 하는 성상담소(S-터닝 포인트)모두 음악을 매개체로 고객과 소통할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음악회 덕분에 집에서도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하(정 원장과 문 소장은 부부다.)

## 문화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 중인 또 다른 나눔이 있을까요?

**정 원장 :** 아침음악살롱을 후원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행복했습니다. 음악살롱의 거의 모든 공연이 알토란같았습니다.(호호) 3월의 박종호 기타 앙상블, 5월의 '춘천 거기', 7월의 해설 음악회, 9, 11월의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와 하림과 함께하는 '집시의 크리스마스 테이블'은 착한 사람들과 좋은 음악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음악을 좋아해 안산어머니합창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저에게 아침음악살롱은 나누는 즐거움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찾았습니다. 병원 내 공간은 산모를 위한 요가교실과 태교교실을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강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살리고 싶고요.

병원 내 힐링센터에서는 유방암 자기진단이나 아이 출산으로 중요성이 커진 재무상담 교실, 요즘 뜨고 있는 '정리학'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 4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이주 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동화책 직접 읽어 주기(장미로타리 프로젝트 직업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

취재\_ 남양숙





## 서울예술대학교 마임동아리 <판토스>

# 청춘의 몸짓, **마임**

두툼한 점퍼 뒤에 새겨진 불꽃마크만큼이나 빠알간 열정을 지닌 학생들로 가득한 곳.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서울예술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비예술인들의 요람이다. 그곳에 올해로 창단 20년째를 맞은 마임동아리 '판토스'가 있다. 폭설이 내린 12월의 어느 날, 뜨거운 겨울나기 준비가 한창인 그들과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 마임동아리

1993년, 우연히 접한 마임공연에 큰 감동을 느낀 한 학생이 한국마임협회와 교류를 시작하면서 만든 마임동아리 '판토스'(지도교수 임형택). 그동안 연기의 한 부분으로만 알고 있던 마임을 대학동아리로 만들었던 것도 특별한 일이지만 전국대학 최초의 마임동아리란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최초란 말이 주는 부담감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20년이란 숫자가 주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라며 운을 뗀 21기 정윤태 회장의 눈빛에서 어떤 숭고한 결의가 엿보였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 고작 두 명 뿐인 연기전공자?

흔히들 마임이라고 하면 도고의 연기훈련을 받은 배우가 선보이는 신체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판토스에는 스무 명 정도의 단원들 중 고작 2명의 연기전공자가 있을 뿐이다. 그럼 나머지 단원들의 전공은 무엇일까. 광고창작과, 디지털아트과, 극작과와 같은 소위 비(非)연기전공 학생들로 구성된다.

21기 김찬민 단원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예대학생들 특성상 마음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신체 훈련이 잦아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 하지만 기본적인 동작 몇 가지만 익히고 나면 직접 짧은 공연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니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드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 학교 밖으로 행군하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춘천마임축제, 하계워크숍, TV CF 촬영, 각종 교내행사 등 판토스가 공연을 선보이는 횟수는

연간 10여 차례가 넘는다. 그 중 외부공연이 교내행사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운태 회장은 “전문 마임미스트를 초청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많이 들고 마음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도 부족하다보니 공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답하며, 특히 “올해 안산에서 펼친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공연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회상했다.

다수의 외부공연을 소화하기 위해선 레퍼토리가 다양해야 하지 않을까. 놀랍게도 판토스는 대본을 구성하는 작가나 연출가가 따로 없다. 단원들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재를 발굴해 내거나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접하려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모인 생각과 생각들이 늘 새로운 작품들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저희는 늘 새로운 실험을 해봐요. 다양한 일상의 도구들을 활용해보기도 하고, 영상과 마임을 접목시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만 좋은 공연이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 우리는 ‘오픈’ 판토스!

판토스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동아리로도 손꼽힌다. 안산국제거리극제에서도 소개된 <마블러스 모션>이나 <고도>와 같은 판토스에서 실력을 닦은 졸업생들이 주축이 된 단체도 있다. 세상 속에 점차 자신들의 ‘판’을 넓히고 있는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정운태 회장은 “아직 투박하고 거친 부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보다 정제된 공연, 세련된 공연을 만들어 가는 게 꿈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끔씩 판토스의 공연을 보고 마음을 배워보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그들은 배우고자하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예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언제나 판토스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전했다. 평소 마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그 문을 두드려 볼만하다. 끊임없이 세상의 문을 열어가는 그들에게 큰 응원을 보낸다. 🌈

취재\_ 엄현석



## 차별 없는 공연 정보 제공을 위해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웹 환경 개선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삶에 떨어질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린 웹을 정의하는 말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인터넷 공간을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인증을 마쳤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시각장애인은 음성 지원 단말기를 통해, 공연 및 전시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장애인들의 쾌적한 공연관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의 공공극장은 장애

인 전용 좌석과 휠체어 리프트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공연 정보 제공을 위하여 웹 환경을 개선하게 되었다. 웹 접근성 인증은 아직 많은 공공예술기관에서 적용되지 않은 환경이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통해서 많은 예술단체에서 이와 같은 방식이 채택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웹 접근성 인증을 통하여 ‘문화나눔’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활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개선을 통해 장애인에게도 예술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되길 기대해본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회원수 7만 5천 명 돌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회원수가 개관 8년 만에 7만 5천 명을 돌파했다. 안산시 인구의 10/1의 해당하는 회원수인 7만 5천 명은 가구당 1인 회원으로 계산해보면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회원에 가입되어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향후 안산문화재단으로 그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산 인근 지역인 시흥, 군포, 수원, 화성, 안양 등 타 지역 관객 유치에도 더욱 힘써 경기 서남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201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아카데미 예술제 '성장 Growing Up!'

지난 2012년 12월 10일 ~ 16일 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꾸미는 예술제 '성장 Growing Up!'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였다.

아카데미 예술제는 1년 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만드는 작품발표회로써 22개 강좌의 315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발표회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성취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로 발전시키기 위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발표의 장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큰 보탬이 되고자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13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 사업』안내

안산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에서는 2013년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을 공고 하오니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 2013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 신청자격 : 안산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공연예술, 시각예술, 복합예술 등)
  -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 ※ 개인신청불가
- 지원대상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원
  - 동네와 마을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

문화기반시설	안산문화재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문화거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마을문고, 생협 등 동아리모임방 등 함께 모이고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장소 일체

- 우선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예술단체가 합심하여 실행하는 공동체 기반 예술프로젝트
    - ※ 주관단체는 지역 단체여야 하며, 협력단체는 타 지역 단체도 가능함
  - 지역문화공간(문화기반시설 등)에 근거지를 둔 문예동아리 연합 프로젝트
- 지원예산 : 96,000천 원  
(지원한도 : 우선대상 사업일 경우 10,000천 원,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총 지원예산	지원구분	
	96,000천 원	안산문화재단
48,000천 원		48,000천 원

- 사업 공고 일정
  - 공고 및 접수 : 2013. 1월 중
  - 심의 및 결과발표 : 2013. 2월 중
  - 제출서류 : 추후 공지
- ※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ansanart.com](http://www.ansanart.com)) 통해 공고
- 문의 : 안산문화재단 담당자(031-481-4047)





연극놀이터 해마루와 함께하는 '무대야 놀자'

# 달에서! 떨어졌던 옥토끼!

으아아아아아~ 쿵! 아이코 엉덩이야 ><

달에서 방아를 쪼던 옥토끼가 그만 발을 헛디더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옥토끼는 무사히 달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옥토끼를 도와 달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아 보아요~

## 프로그램 순서

- 로비 집결 → 무대 입장 → 무대장치 및 프로그램 설명
- 무대막 오픈(배우 등장) → 페이스 페인팅(사진 촬영)
- 무대 승하강 체험 → 조명을 활용한 연극놀이
- 퇴장(기념품 증정)

## 참가자격

- 참가자격 : 무대에서 놀고 싶은 5~7세 어린이
-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참 가 비 : 1인 3,000원(인술교사 및 학부모 무료)
- 문 의 : 031-481-4093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무대야 놀자'는 연극놀이터 해마루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함께하는 무대체험형 연극놀이입니다. 아이들은 즐거운 연극놀이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무대 장치 및 극적상황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

교육전시부



## 상주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연장과 지역(민)을 연결해 주는 커뮤니티 아트 **community art** 창출!

지난 18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이하(안산 문예당) 예절실에서 '다방토론'회가 있었다. '사심 없는 집담회-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예술가의 생존전략'이란 타이틀이 붙은 이 모임의 취지는 공연장 상주단체 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에 대한 모색이다. 안산 문예당 상주단체 '몸꿀' 윤종연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지역 공연장 상주단체 12팀 15명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김덕희 안산국제거리예술제 PD가 참관했다. 각각 5분씩 주어진 단체 소개 영상을 통해 서로의 장르와 활동 현황을 공유한 참가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견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예술가의 다양한 방식, 지역 내 상주단체의 태도와 역할에 대해 열띤 토의를 했다.

상주단체 선정은 경기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육성사업'에 의거해 2009년 처음 시작되었다. 도내 지역 공연장의 관객유치와 예술단체들의 안정적인 활동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시작 해에는 3개 공연장과 3개 예술단체에서, 올해는 16개 공연장과 17개 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안산 문예당에는 '몸꿀' 외에 극단 '북새통'이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 |||| 지역과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

**사회자 윤종연 대표**\_ 추운 날씨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상주단체 관계자 그리고 토론회를 주최하고 후원한 경기문화재단과 안산 문예당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만남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각각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상주단체 여건 상, 모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할 말도 많은데요, 멀리서 오신 분들 숨 돌릴 겸, 안산문예당의 장수(?)상주단체 (웃음) 김소리 대표의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소리 대표(극단 북새통)**\_ 다행히 재계약이 되어 장수 상주단체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지난 2년은 안산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이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런 기간을 보내고 나니 이러저러한 방식과 방법으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왔지?'하는 질문을 끝없이 했는데, 이 질문의 답이 '커뮤니티'였다.

작품 '코리아 웨이크'는 지역에 대한 리서치 과정으로 이주

노동자를 만나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 작품은 새롭게 될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만들어지고 연결된 것이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워크숍, 독해공연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극단과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이런 만남이 지역 내 커뮤니티 아트의 시작인 것 같다.

**이기복 대표(극단 파발극회)**\_ 김소리 대표의 의견에 동감한다. 광주에서 93년에 창단한 우리 극단이 그나마 표를 판매하고 홍보물에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것은 창단한 지 한참 후의 일이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만나서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극단은 청소년 연극에 중점을 두는데 청소년연극은 교육적 효과 외에 아이들의 부모와 친척이 점차 열혈 관객이 되는 장점이 있다. 자연스럽게 카테고리를 이루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참고로 나는 교사 출신이다.



## |||| 사회적 요구와 창작 욕구 ||||

**사회자 윤종연 대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는 연간 일정횟수 이상의 공연 실시 및 공연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관 외에 사무실, 연습실 사용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회적 요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나요?

**김정숙 대표(극단 모시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과천은 지원 사업이 있기 전부터 시민이 자발적으로 극단을 지원한 케이스다. 그 시간까지 치면 10년 됐다. 시작이 다른 상주단체와 달라서인지 사회적 요구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 오히려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초심을 배운다. 시민배우를 보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서로의 꿈을 이뤄가고 완성하는 동반자라 생각하니 '요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지원 사업비는 100%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산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

**성용희 사무국장(가네사프로덕션)** 우리 단체는 백남준 아트센터 상주단체다. 다른 단체들이 지역사회 깊숙이 들어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관객의 참여와 개발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장르를 융합하고 복합화 하는 작업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형식의 작품제작을 하고 있다. 관객도 상대적으로 소수다. 사회적 요구와 창작 욕구가 같은 방향이다.

**원영오 대표(극단 노들)** 우리는 강원도 문막에서 농촌형 공동체를 꿈꾸며 극단을 했다. 하지만 부천으로 활동지를 옮기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해야 할 영역과 성격의 차이점을 알았다. 도시에서 상주단체의 태도와 역할에 대해 생각했다. 도시는 이미 지역 커뮤니티가 서로 경쟁하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들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프로젝트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이런 자각이 들자 근본적인 것을 생각했다. '나는 여기 살고 있다.'는 근본을 잡자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원종시장에서 친구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 집중적으로 한 점포를 이용했다. 회식도 한 곳에서 했다.(웃음) 사람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지역을 만들자 프로젝트의 지속성이 생겼다. 상주단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덕희 PD** '창작 과정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다. 과정에서 참여도와 노출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다. 조금 각도를 달리 한다면, 커뮤니티 아트와 교육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점진적으로 두 분야의 세분화 작업은 소모적인 작업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간담회 참석 소감 ||||

**왕규식 대표(아리수)**\_ 상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단 관계자에게 듣는 문화예술 사업 방향을 큰 틀에서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나중에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따로 시간 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정종운 기획팀장(청평문화예술학교)**\_ 같은 경기도 내 상주단체라 하더라도 각각의 활동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줘야 하는 바람이 있다. 군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것은 좋기는 하다.(웃음)

**홍성인(프라이미필하모닉오케스트라)**\_ 장르에 대한 것도 배려해줬으면 한다. 연극 단체가 많아 음악이 길 자리가 많이 없었다.(웃음) 그러나 장르에 상관없이 예술을 통해 사람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 자리가 의미 있다.

바람이 있다면 상주단체끼리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교환 공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상주단체끼리 머리를 맞대고 화두인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것은 서로에게 발전이 될 것이다.

**양원모 팀장(경기문화재단)**\_ 경기문화재단의 상주단체 지원 사업은 '발이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싹이 돌아나 떡잎이 어떻게 뻗어갈 지 모르는 상태다.

재단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이상향은 상주단체가 공연장과 지역(민)간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상주단체를 모델로 실력 있는 자생 단체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해 주길 바란다. 🌈

취재\_ 남양숙



# 체험공연 <가방 속의 울퉁이>

가방이 꺼-억-- 상상력이 짜-억---

무엇이든 상상하기 좋아하는 어린이, 앉아 있는 건 답답해!  
달리고 구르고 움직이기 좋아하는 어린이,  
체험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가짐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온다!



<가방 속의 울퉁이>는 사람들을 겁내는 한 친구, 울퉁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울퉁이는 관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관객들을 피해 가방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상상지킴이와 관객들은 울퉁이의 상처에 공감하고 서로 힘을 합쳐 다 같이 울퉁이를 만나러 떠나기로 합니다.  
이들은 울퉁이를 만나기 위해 비밀작전회의를 하고 마법의 바다를 수영하며 용기의 문을 통과하는데...

과연 울퉁이는 자신을 찾아와준 관객들 곁으로 나와 줍니까요?  
그들과 함께 신나게 어우렁길 수 있으니까요?

- 공연기간 : 2013. 1. 8(화) ~ 1. 16(수) / 월요일 공연 없음  
평일 11:00 / 주말 11:00, 14:00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대 상 : 5~7세 어린이(\*부모입장 제한)



## 몸으로 상상하도록 하는 색다른 공연!

(가방 속의 울퉁이)는 아이들과 공연자가 어우러져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험공연입니다.

아이들은 공연 속에서 친숙하게 말을 걸어오는 등장인물을 만나면서 그들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상상하다가 결국 아이들은 공연의 한 요소가 되어갑니다.

다양한 신체표현과 연극놀이를 기반으로 한 체험공연으로 아이들에게 숨어있던 상상력, 표현력, 사회성, 감수성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 보다 새롭고 독특한 시각을 갖도록 해줍니다. 톡톡 튀는 아이들만의 상상력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한 번 그려졌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상상력이 아닌 몸 밖으로 튀어나온 특별한 상상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송지연(축제사무국)

# 대관신청안내

## ▶ 대관문의/신청

### ■ 공연동 및 기타시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 대관담당자 앞  
 TEL 031-481-4027 FAX 031-481-4021

### ■ 전시동 내 기타시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재단 교육전시부 대관담당자 앞  
 TEL 031-481-4095 FAX 031-481-4094

## ■ 공연장

시설명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야외공연장
규모	1,368석(아동극1,060석)	686석	142석(가변석)	1,000명 수용

## ■ 전시관

시설명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규모	368.13㎡	361.85㎡	361.78㎡	360㎡

■ 국제회의장 : 181석(회의석 112석 방청석 69석)





아름다운 만남

# 나누미

2012년 12월 현재

총 167,683,6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 행복회원

안산시청 경제정책과, 웨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신한은행농구단, 안산1대학,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종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엔씨커뮤니티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중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딴따라', 양미경, 주부연극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종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윅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비람놀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빅스캠프, 잼마트리, 천사부메랑,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동아리 신포니아)

## ■ 참여방법

문의 : 031-481-4046(문화나누미 담당자)

전당홈페이지 : [www.ansanart.com](http://www.ansanart.com)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161-01-086553

안산문화재단 문화나누미

## ■ 회원구분 및 예우

구분	기부금액	회원예우
나눔회원 (개인)	1만원 이상	1. 기부금영수증발급 2. 무료공연 우선초청
보람회원 (개인/단체)	10만원 이상	3. 기획공연 프로그램보증 4. 전당소식지 '하늘다리' 우송
행복회원 (개인/단체)	100만원 이상	5. 전당기념품 증정(보람, 행복회원)

- 회원자격은 1년간 유지됩니다.

- 기부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 예) 직장동료, 모교후배 등

아름다운 만남

# 나누미



나누미(美)란 **‘나누면 누구나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경제적으로 공연관람이 힘든 소외 이웃들에게 공연을 선물하는 문화나눔 캠페인입니다.  
지금, 문화나눔 회원이 되세요. 나눌수록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